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12. 04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27~12/1)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11월 S&P 종합 PMI와 고용지수가 50선 하회하는 등 경기 냉각 조짐 보이자 달러 약세 분위기 조성되며 환율 소폭 하락 출발. 이어 미국 주택지표 부진과 연준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미국채금리 하락 등에 하락세 지속
- 중반, 매파적 성향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현 통화정책이 성장 둔화 및 물가 목표 달성에 있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1,280원대로 하락
- 후반, 한은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과 미국 물가지표 발표 전 경계감 등을 소화하며 소폭 상승. 이어 주 후반, 미국 10월 PCE 둔화에도 연준 인사의 경계성 발언과 수급상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 유입 영향 속 재차 상승 후 마감

달러/원 전망

- 전주 파월 의장 발언이 여전히 추가적인 긴축에 나설수도 있다는 기존 언급을 재확인했지만, PCE물가의 하락세 지속, 고용 냉각 등에 따른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인식 속 도비시하게 해석
- 여기에 의장이 현 통화정책 기조가 제약적 영역에 진입했다고 언급한 측면도 비둘기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요인
- 다만, 최근 흐름에서 1,300원 하회에 따른 결제수요 유입 등의 수급 요인이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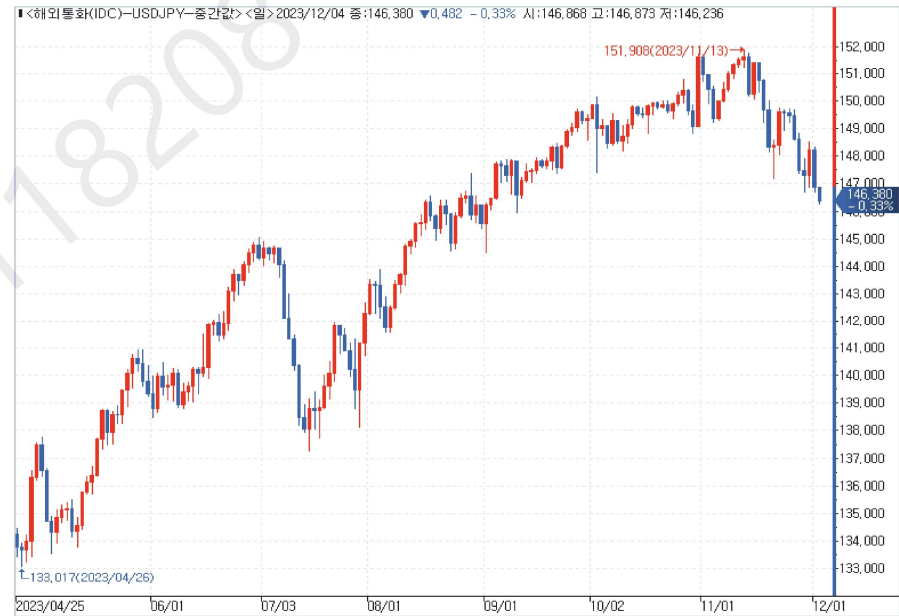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03.9	1,308.4	1,286.1	1,305.8	+1.9

예상거래범위

1,285원 ~ 1,300원



엔·유로화 동향 (11/27~12/1)



유로화 동향

- 주초, 독일 정부의 예산안 위한 결정으로 인한 독일 국채 수익률 상승 등에 유로화는 달러 대비 소폭 강세 출발. 이어 연준 이사의 완화적 발언으로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 유입됨에 따라 상대적인 강세 흐름 지속
- 중반, 독일 11월 CPI가 시장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ECB의 금리인상 또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약세 전환
- 후반,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됨에 따라 ECB의 금리인하 전망 대두되면서 큰 폭의 약세 시현. 이어 주 후반,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도 ECB의 통화정책 피벗이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세 흐름 속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945	1.1017	1.0829	1.0880	-0.0065

엔화 동향

- 주초, 미 주택지표 부진 등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과 일본 수출기업들의 엔화 매수에 달러 대비 강세 출발. 이어 연준 내 매파 인사의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달러 가치 급락하면서 강세
- 중반, BOJ와 연준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영향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 지속되면서 강세 분위기 지속
- 주 후반, BOJ 관계자가 금융완화 정책 유지 필요성 재차 강조하자 엔화 약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Fed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 후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유입에 따른 달러 약세와 미 국채수익률 하락 영향 속 강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9.5	149.7	146.7	146.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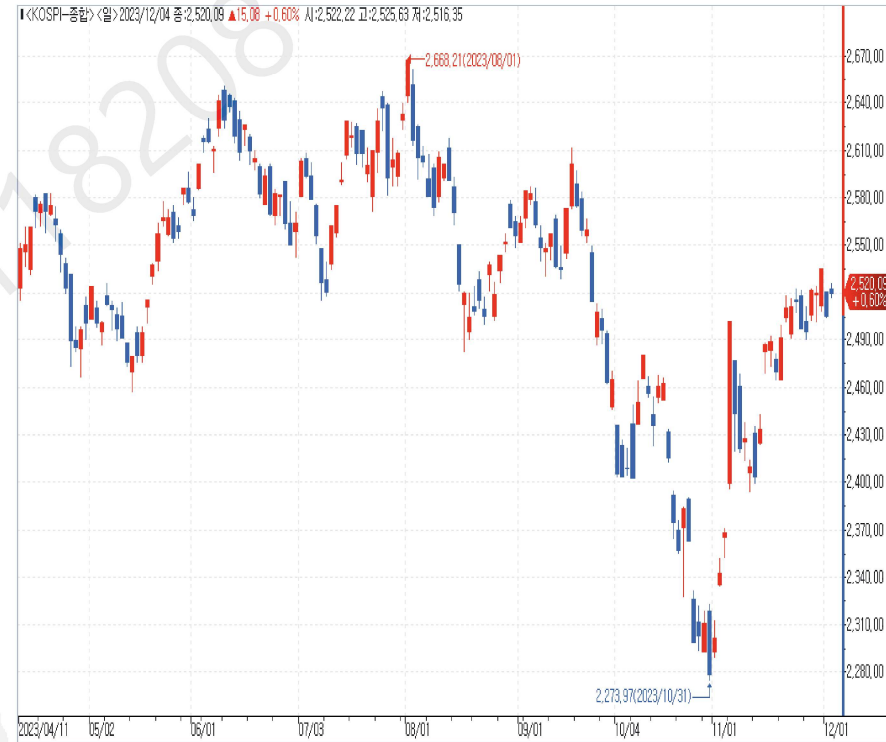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27~12/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독일 정부 재정 집행 중단 영향 등에 따른 금리 상승 등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동조하며 상승한 영향 등을 반영, 국고채 금리도 상승 출발. 이어 미국 주택 지표 부진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 전환 영향 속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매수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 후 금통위에 대한 관망 분위가 짙어진 형국
- 중반 들어, 금통위를 앞둔 시점에서 주요 연준 위원의 비둘기파적 신호가 전해진 측면을 반영하며 하락 추세 유지
- 후반 들어, 한은이 내년 국내 성장률을 하향하면서도 여전히 향후 물가 상승 우려한 매파 성향으로 보험 흐름 유지한 가운데, 이어질 미국 PCE물가와 고용 관련 지표 경계감 등으로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PCE 물가의 시장 예상 부합 속에 고용지표가 소폭 냉각 양상을 보였으나, 미 국채금리는 그간 금리인하 전망 선반영에 따라 일부 되돌림 되었고, 국고채 금리도 이에 동조 양상 보이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주요 미국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된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 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시장의 물가 하락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미 국채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른 긴축 기대 완화 등으로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긴축 완화에 대한 뉴욕 증시 상승에도 중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이 다소 크게 장증 반영된 가운데 기관 매도 등으로 하락 재전환
- 후반 들어,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도 내년 국내 실질 GDP를 낮춤에 따라 금리 인하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재차 상승 전환 후, 미국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관망 흐름 속 소폭 상승 추세 유지. 이어 주 후반, 국내 11월 수출 호조에도 증시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되돌려 지며 외국인, 기관 매도 강화 속 하락 마감